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의 영향력 검증¹⁾

조현지²⁾ · 허무녕³⁾

²⁾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강사, ³⁾ 순천향대학교 마음건강증진연구센터 연구교수(hmn@sch.ac.kr)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여 정서조절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 등의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잠재집단별로 효과적인 정서조절 능력의 함양을 위한 개입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의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3792명이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3.0과 Mplus 8.9를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는 3개로 나타났으며, 각 잠재집단을 정서조절 저수준 집단, 정서조절 중수준 집단, 정서조절 고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정서조절 잠재집단의 분류에 대한 예측요인은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잠재집단별로 그 영향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론: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을 서로 다른 다수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여 초등학생의 정서조절 능력의 향상을 위해 잠재집단별로 다른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입의 초점에 관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초등학생, 정서조절,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잠재프로파일분석

1) 이 논문은 2023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C2A03099545)

I. 서론

현대 사회는 학업성취뿐 아니라 정서와 인간관계를 포함한 전인적 역량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동기 정서 발달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 학업 동기, 심리적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심리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Denham, 2006; Eisenberg et al.,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정서조절은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며(Gross, 1998),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를 예측하는 핵심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Thompson, 1994).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보건복지부, 2022),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 외현화 문제 및 내재화 문제를 살펴보면, 9~11세 아동의 공격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울, 불안, 파괴적·충동조절 및品行장애와 같은 정신장애의 청소년(만12~17세)의 평생 유병률은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4). 이 시기의 정서행동문제는 학업 성취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심리적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Achenbach & Rescorla, 2001). 따라서 높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많은 아동들이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량,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는 역량의 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발달의 가속화 현상과 더불어 성장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개인차는 존재할지라도 대체로 10세경에 성장 급등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장휘숙, 2007; 정옥분,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전환기를 경험한다고 보았다(이정미, 양명숙, 2006).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를 보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와 유사한 정신적 성숙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갈등과 적응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양명숙, 한영숙, 2007).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의 문제행동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증진시키면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

는 여러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은 환경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 및 기질적 특성과 함께 환경에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존재이기에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개인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대인관계와도 연관된다는 점에서(공유경, 2023)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이란 어떤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영향을 주도록 사용하는 절차를 의미하며(Gross, 1998) 개인의 심리적 안녕이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조절은 ‘정서적 역량’의 개념 안에서 정서관리 및 조절 역량과 정서이해 및 표현 역량의 두 특성 중 정서관리 및 조절 역량에 중점을 두었고 여기서 정서적 역량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상황에 알맞은 표현과 반응을 하며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정서를 인지적·사회적·행동적 측면에서 조절하는 역량을 의미한다(김경희 등, 2020).

김경희 등(2020)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정서조절 역량의 개념과 그 구성요인들을 검토하여 정서조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자기 정서조절과 타인 정서조절, 낙관성, 활력성 등으로 정의하였다. 자기 정서조절은 한 개인이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정적 정서를 줄이고자 자기 정서 수용, 이완, 긍정정서 전환, 주변의 지지를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타인 정서조절은 집단이 목표한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타인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자 긍정적 정서 강화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낙관성은 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감정을 주된 정서로 느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능력을, 활력성은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지속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높은 활력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의 개인 내적 특성의 구성요소로 활력성은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박은희, 1996).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잘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 유형으로서 회복탄력성(Block & Block, 1980)을 정의하면 활력성은 회복탄력성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낙관성 또한 세상에 대한 긍정적 참여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도록함으로써(Block & Kremen, 1996)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신지연, 2004).

이처럼 정서조절은 하나의 단편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태도와 역량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같이 변수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여 아동의 정서조절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 중심적 접근 방식인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모집단 내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다수의 잠재적인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잠재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분석방법으로 모집단을 여러 잠재적 하위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agidson & Vermunt, 2002). 즉, 아동의 정서조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수준과 모습으로 정서조절 잠재집단을 형성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이러한 잠재집단 유형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조절이 개인의 의식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의 상호적 관계,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의 정서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 이해를 위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Campos et al., 1989). 가정과 학교는 아동의 발달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이다(Bronfenbrenner, 1979).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의 경험과 상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정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아동의 긍정적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대상으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태도는 아동의 정서조절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자녀가 출생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히 독립하기까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훈육방법, 의사소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하유미, 박성연, 2012)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형성의 토대가 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정서적 특성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은경, 송영혜, 2008; 임희수, 박성연, 2002),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 및 양육행동도 자녀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서정, 유연옥, 2011; 이하늘, 이숙, 2012). 서은희와 이미숙(201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자녀가 애정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동은 자신의 행동 및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

다. 즉, 사회적 맥락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동기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른 환경으로서 학교는 아동이 많은 시간을 생활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에서의 상호작용은 또래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아동은 학령기 후기로 접어들수록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친밀한 우정관계가 형성되면서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 아동기에 또래집단에게 수용되는 경험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자아개념을 도모하며(Bukowski & Hoza, 1989), 이러한 대인관계의 질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Gifford-Smith & Brownell, 2003; Kupersmidt, Coie, & Dodge, 1990),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위해 달성해야 할 주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개인의 다면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진 변수 중심적 접근법을 활용하기보다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여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사람 중심 접근으로서 모집단 내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다수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자기 정서조절과 타인정서조절, 낙관성, 활력성을 축으로 하여 정서조절에 대한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잠재집단의 분류에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는 몇 개이며, 각 잠재집단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정서조절 잠재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은 무엇이며, 각 예측요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의 1차년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의 효과를 종단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2021년 기준 초, 중, 고등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학교장 및 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초교 패널(Elementary School & Beyond: ES&B)을 활용하였으며, 전체 대상자 5,047명 중 결측치 및 무성의한 응답을 보인 1,255명을 제외한 초등학생 3,792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학년은 202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이며, 성별은 남아 1,876명(49.5%), 여아 1,916명(50.5%)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정서조절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은 김경희 등(2021)이 개발한 학생역량 검사지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역량 검사지는 인지역량과 참여자치 역량, 사회정서역량을 측정하는 총 1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1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에서 정서조절은 자기 정서조절과 타인 정서조절, 낙관성, 활력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자기 정서조절

자기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나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망스러

운 마음에서 벗어난다' 등의 4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김경희 등(2021)의 연구에서 본 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71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70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평균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타인 정서조절

타인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나는 재미있는 말이나 농담으로 과제 결과에 실망한 친구의 기분을 풀어준다' 등의 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김경희 등(2021)의 연구에서 .72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평균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의 목표 수행을 위해 타인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낙관성

초등학생의 낙관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7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주된 정서로 느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4) 활력성

활력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는 것은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다' 등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1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높은 활력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SELS 2010)의 척도를 김경희 등(2021)이 수정한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학교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신다’와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상의하는 분이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Cronbach’s α 값은 .85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SELS 2010의 척도를 김경희 등(2021)이 수정 및 보완한 또래관계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70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잠재집단의 분류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3.0과 Mplus 8.9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상세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초등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연구도구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주요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통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넷째,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자기 정서조절과 타인 정서조절, 낙관성, 활력성을 축으로 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LPA에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1개부터 6개까지 증가시켜가면서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와 *BIC*, *SABIC* 등의 정보지수와 *Entropy* 지수, *LMR-LRT*와 *BLRT* 등의 모형비교지수, 최소집단의 사례 수 및 집단 분류율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지수를 판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보지수의 경우 값이 작아질수록 잠재집단의 분류가 적절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Geiser, 2011), 감소의 폭을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모형을 판단하였다. *Entropy* 지수의 경우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낼수록 분류의 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Kreuter, Yan, & Tourangeau, 2008). 모형비교지수인 *LMR-LRT*와 *BLRT* 값의 경우 *p*값이 유의할 경우 잠재집단의 수가 *n*개인 모형을, *p*값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잠재집단의 수가 *n*-1개인 모형을 선정하였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최소집단의 사례 수와 집단 분류율의 경우 선행연구의 제안에 따라 최소집단의 사례 수가 25명 이상 혹은 최소집단의 분류율이 1% 이상일 경우만을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Bauer & Curran, 2002; Lubke & Neamle, 2006). 다섯째, LPA를 통해 확인한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의 분류를 예측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LR)분석을 실시하였다. MLR 분석은 준거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비교를 실시하여 예측요인이 준거집단보다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함에 있어 승산비(Odds Ratio: OR)를 활용한다. 승산비의 경우 1을 기준으로 하며,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 예측요인의 값이 한 단위 올라갈수록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OR값이 1보다 작은 경우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이희연, 노승철, 2013).

Ⅲ. 연구결과

1.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값을 나타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자기 정서조절과 타인 정서조절, 낙관성, 활력성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와의 관계 및 문제행동 변인 또한 일부 변인들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1.421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5).

<표 1>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 | 1-1 | 1-2 | 1-3 | 1-4 | 2 | 3 |
|-----------|-------|-------|-------|-------|--------|--------|
| 1-1 | 1 | | | | | |
| 1-2 | .636* | 1 | | | | |
| 1-3 | .650* | .652* | 1 | | | |
| 1-4 | .520* | .635* | .589* | 1 | | |
| 2 | .012 | .007 | .012 | .013 | 1 | |
| 3 | -.002 | .033* | .013 | .035* | .355* | 1 |
| <i>M</i> | 3.823 | 3.638 | 4.007 | 3.639 | 4.266 | 4.182 |
| <i>SD</i> | .803 | .951 | .825 | .939 | .709 | .721 |
| 왜도 | -.443 | -.423 | -.699 | -.360 | -1.132 | -1.046 |
| 첨도 | -.275 | -.324 | .157 | -.504 | 1.279 | 1.421 |

1-1. 자기 정서조절, 1-2. 타인 정서조절, 1-3. 낙관성, 1-4. 활력성,

2. 부모와의 관계, 3. 또래관계

* $p < .05$

2. 초등학생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집단의 수를 1개부터 6개까지 증가시켜가면서 정보지수와 *Entropy* 지수, 모형비교지수, 최소집단의 분류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AIC*와 *BIC*, *SABIC*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의 수 증가에 따라 3가지 정보지수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에 대한 잠재집단의 분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보지수 감소의 폭을 살펴보면 잠재집단이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가장 가파른 기울기를 나타내었으며, 이후부터 기울기가 다소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지수의 경우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인 모형에서 .814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잠재집단의 수가 2개인 모형에서 .804, 4개인 모형에서 .783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모형비교지수의 경우 잠재집단의 수가 2개인 모형부터 6개인 모형까지 LMR-LRT와 BLRT 모두 p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소집단의 사례 수와 집단분류율 또한 모든 모형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 지수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과,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에 대한 잠재집단은 3개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2>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 | Class 1 | Class 2 | Class 3 | Class 4 | Class 5 | Class 6 |
|------------------|-----------|-----------|------------------|-----------|-----------|-----------|
| <i>AIC</i> | 39075.417 | 33828.570 | 32356.559 | 31861.920 | 31717.596 | 31508.274 |
| <i>BIC</i> | 39125.342 | 33909.699 | 32468.891 | 32005.455 | 31892.334 | 31714.215 |
| <i>SABIC</i> | 39099.922 | 33868.391 | 32411.695 | 31932.372 | 31803.363 | 31609.357 |
| <i>Entropy</i> | - | .804 | .814 | .783 | .729 | .754 |
| <i>LMR-LRT</i> | - | .000 | .000 | .000 | .002 | .015 |
| <i>BLRT</i> | - | .000 | .000 | .000 | .000 | .000 |
| 최소집단 | 100 | 44.3 | 14.4 | 3.8 | 2.4 | 2.4 |
| 분류율 (<i>n</i>) | (3792) | (1681) | (547) | (144) | (91) | (92) |

주) *LMR-LRT*와 *BLRT*는 p값을 표시함

3. 초등학생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의 특성

LPA를 통해 분류된 정서조절 잠재집단의 특성을 나타낸 것은 <표 3>과 같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각 잠재집단을 살펴보면, Profile 1의 경우 가장 적은 인원인 547명(14.4%)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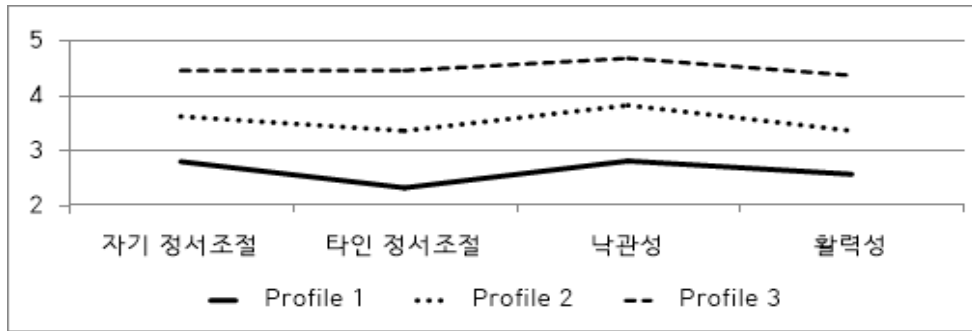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에 따른 세 가지 잠재집단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기 정서조절($M=2.777$), 타인 정서조절($M=2.030$), 낙관성($M=2.789$), 활력성($M=2.548$) 점수를 보여 정서조절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기에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거나 타인의 정서에 반응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에 Profile 1을 ‘정서조절 저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1695명(44.7%)의 인원이 포함되어 가장 큰 잠재집단으로 나타난 Profile 2는 자기 정서조절($M=3.065$)과 타인 정서조절($M=3.344$), 낙관성($M=3.808$), 활력성($M=3.345$)의 네 가지 정서조절 하위요인 모두가 다른 두 잠재집단들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정서조절이 특정 영역에서 과도하게 낮거나 높지 않은 전형적인 중간 기능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에 Profile 2를 ‘정서조절 중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Profile 3의 경우 1550명(40.9%)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기 정서조절($M=4.442$)과 타인 정서조절($M=4.444$), 낙관성($M=4.666$), 활력성($M=4.355$)의 네 가지 하위요인 모두 다른 잠재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긍정적 정서경험과 정서적 활력, 자기 및 타인 정서조절 능력이 모두 우수한 고기능 집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Profile 3을 ‘정서조절 고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초등학생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별 특성

| | $M(S.E.)$ | | | | n (%) |
|-----------|--------------|--------------|--------------|--------------|----------------|
| | 자기 정서조절 | 타인 정서조절 | 낙관성 | 활력성 | |
| Profile 1 | 2.777 (.054) | 2.303 (.074) | 2.789 (.078) | 2.548 (.060) | 547 (14.4) |
| Profile 2 | 3.605 (.041) | 3.344 (.048) | 3.808 (.045) | 3.345 (.045) | 1695 (44.7) |
| Profile 3 | 4.442 (.024) | 4.444 (.027) | 4.666 (.018) | 4.355 (.027) | 1550 (40.9) |



[그림 1] 초등학생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별 특성

4. 초등학생 정서조절에 잠재집단 분류의 예측요인 분석

초등학생 정서조절의 잠재집단 분류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MLR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MLR 분석에서는 가장 높은 정서조절능력을 보인 ‘정서조절 고수준 집단’(Profile 3)을 비교집단 (comparison group)로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개의 집단을 각각 준거집단(reference group)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MLR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정서조절 저수준 집단(Profile 1)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두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관계($B=.395, p<.05$)와 또래관계($B=.165, p<.05$) 모두 정서조절 상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을 유의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OR 값을 살펴보면 정서조절 고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부모와의 관계가 1점만큼 높아질수록 1.485배, 또래관계가 1점만큼 높아질수록 1.179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준거집단을 정서조절 중수준 집단(Profile 2)으로 하여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관계($B=.183, p<.05$)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또래관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8, ns$). 즉, 부모와의 관계는 정서조절 중수준 집단에 비해 정서조절 고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1점만큼 올라갈 때마다 정서조절 고수준 집단에 속할 승산이 1.201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초등학교 정서조절 잠재집단 분류의 예측요인 검증

| 준거집단 | 비교집단 | 예측요인 | B (S.E.) | OR (S.E.) |
|-----------------------|-----------------------|---------|--------------|--------------|
| 저수준 집단 (Profile 1) | 고수준 집단 (Profile 3) | 부모와의 관계 | .395* (.163) | 1.485 (.242) |
| | | 또래관계 | .165* (.073) | 1.179 (.086) |
| 중수준 집단 (Profile 2) | | 부모와의 관계 | .183* (.082) | 1.201 (.098) |
| | | 또래관계 | .028 (.081) | 1.028 (.083) |

* $p < .05$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의 1차년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잠재집단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서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자기 정서조절, 타인 정서조절, 낙관성, 활력성을 축으로 유형화한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최적의 모형은 3개의 프로파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정서조절 저수준 집단’은 자기 정서조절, 타인 정서조절, 낙관성, 활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547명(14.4%)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조절 중수준 집단’은 자기 정서조절, 타인 정서조절, 낙관성, 활력성이 전체의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인원인 1695명(44.7%)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 고수준 집단’은 자기 정서조절, 타인 정서조절, 낙관성, 활력성이 가장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1550명(40.9%)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정서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총 4개의 잠재 계층이 확인된 박소라, 이창현(202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적응방략 고사용 집단’, ‘전반적 고사용 집단’, ‘부적응방략 고사용 집단’, ‘전반적 저사용 집단’의 4개 집단이 도출되었으며 각 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정서적 방략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최성환과 최해연(2017)의 연구에서 정서조절 방략을 평균 이상으로 사용하는 ‘고사용 집단’과 ‘저활용 집단’의 내재화, 외현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정서조절전략의 활용 수준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적응 수준이 달라짐을 의미하므로 각 개인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자녀의 정서조절 역량에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세 개의 잠재집단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개입보다는 아동의 정서조절 유형에 따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을 지원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아동의 정서조절 유형 분류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탐색해본 결과,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집단에 따라 각 예측요인의 영향력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정서조절 수준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또래관계는 정서조절 중수준 집단과 정서조절 고수준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정서조절 저수준 집단과 중수준 집단보다는 정서조절 고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수록 정서조절 저수준 집단보다 정서조절 고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으나 정서조절 중수준 집단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으로 하여금 더 높은 정서조절 수준을 보이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또래관계의 경우 아동의 정서조절 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정민, 이유리, 2010; 정지영, 김종남, 2011)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면 자녀의 정서인식능력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능력과 대인관계기술이 발달한다

고 보고한 연구결과(김은주, 2013)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일상생활에서 가족들 간의 감정을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성애, 1998). Eisenberg와 동료들(1994)에 따르면 아동이 부모와 의사소통을 통해 감정표현을 원활히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길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이나 정서지능과 같은 정서적 힘이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보호자와의 관계, 즉 부모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조절능력을 갖게 되면 아동은 자신감 있는 태도와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문제행동이 줄어들게 되므로 적절한 보호자의 훈육태도 및 가족관계에 대한 탐색과 학령 후기 아동 양육에 적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또래관계의 경우 아동의 정서조절 수준에 따라서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조절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서조절 저수준 집단에 비해 정서조절 중수준 집단에서는 또래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 지지의 효과가 이미 일정 수준 확보된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정서조절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또래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서조절 저수준 집단에게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협력 경험, 긍정적 피드백을 촉진하는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또래 멘토링 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정서조절 중수준 집단에게는 단순한 또래관계 증진보다는 정서표현 및 정서 조절전략, 갈등 해결, 공감 능력 확장 등과 같은 정서적 역량을 심화시키는 활동 중심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서조절 수준에 따라 또래관계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집단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결과는 또래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서조절이 어려워져 학교 부적응으로 인하여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김선주(201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래관계의 질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래관계가 좋은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고 문제행동이 감소되며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임성혜, 2010). 하지만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집단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우울, 불안, 폭식, 신경성 행동, 공격적 성향 등의 심리적·행동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김선주, 2014).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타인의 정서를 수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아동의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개입활동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와 함께 하는 정서코칭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을 포함한 정서지능향상을 위한 접근방법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는 아동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신뢰나 사회적 행동 등을 발달시키게 된다(Bergin & Bergin, 2009). 학령기 아동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다른 사회적 관계들을 맺게 되지만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은 부모이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이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기술을 연습해볼 수 있는 바람직한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정서 지도자로서 자신의 정서를 먼저 탐색하고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교육과 상담적 접근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아동의 정서조절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 정서조절, 타인 정서조절, 활력성, 낙관성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에 대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이질적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여 정서조절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의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잠재집단별로 효과적인 정서조절 능력의 함양을 위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부모는 아동과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의 사회·정

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바탕으로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부모와의 관계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아동의 바람직한 정서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서 학교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과, 학교에서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또래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학교부적응 및 또래 간의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환경적 특성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 정서조절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중 보호요인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한다면 아동의 기능적인 정서조절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줄일 수 있는 예방책을 더욱 풍부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초등 저학년 및 고학년을 포함하여 학년별 잠재집단 구성과 영향요인 차이를 탐색한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애 (199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공유경 (2023).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부정적 정서경험의 조절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4(2), 273-288. <http://doi.org/10.7856/kjcls.2023.34.2.273>
- 김경희, 김수진, 김미경, 김광규, 이민형, 김슬비, 김선희, 전경희 (2021). 『**서울교육중단연구 2020**』 2차년도 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김경희, 김완수, 최인봉, 김미경, 김광규, 박준홍, 김선희, 박종효, 도승이, 장현진 (2020). **서울교육중단연구 2020 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RE 2020-1.
- 김선주(2014). **고등학생의 개별성-관계성과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실존적 관계맺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은경, 송영혜 (2008).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정서조절양식, 정서반응태도와 유아의 정서 능력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43-6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83701>
- 김은주 (2013).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의 관계 비교. **교육연구논총**, 34(1), 269-289. <https://doi.org/10.18612/cnujes.2013.34.1.269>
- 김정민, 이유리 (2010).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8(3), 13-2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456760>
- 박소라, 이창현 (2004). 대학생들의 정서조절전략 유형에 따른 자살사고 및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차이 :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24(2), 187-206.
- 박은희 (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보건복지부 (202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 **2022년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서은희, 이미숙 (2012).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어머니-유아 관계,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0(2), 27-46. <http://dx.doi.org/10.7466/JKHMA.2012.30.2.027>
- 송서정, 유연옥 (2011).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국사회과학연구**, 30(1), 115-130. <http://doi.org/10.18284/>

- jss.2011.06.30.1.115
- 신지연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양명숙, 한영숙 (2007). 청소년 전환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1), 351-363. <https://doi.org/10.15703/kjc.8.1.200703.351>
- 이정미, 양명숙 (2006).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7(3), 865-884.
- 이하늘, 이숙 (201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경로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2), 65-74. <https://doi.org/10.6115/khea.2012.50.2.065>
- 이희연, 노승철 (2013). **고급통계분석론-이론과 실습-**. 경기, 문우사.
- 임성혜 (2010). **정신건강론**. 경기, 신광문화사.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https://childstudies.org/upload/pdf/31200735.pdf>
- 장휘숙 (2007). **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옥분 (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지영, 김종남 (2011). 중학생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행동억제 기질 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227-254.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968491>
- 최성환, 최혜연 (2017). 청소년들의 정서조절방략 사용 패턴과 심리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1199-1224.
- 하유미, 박성연 (2012).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175-19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854788>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 profiles: an integrated system of multi-informant assessment*.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auer, D. J., & Curran, P. J. (2003). Distributional assumptions of growth mixture models: implications for overextraction of latent trajectory classes. *Psychological Methods*, 8(3), 338-363. <https://doi.org/10.1037/1082-989X.8.3.338>
- Bergin, C., & Bergin, D. (2009). Attachment in the classroom.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1, 141-170. <https://doi.org/10.1007/s10648-009-9104-0>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15–45). State of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94–402. <https://doi.org/10.1037/0012-1649.25.3.394>
- Denham, S. A. (2006). Social-emotional competence as support for school readiness: What is it and how do we assess i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57–89. https://doi.org/10.1207/s15566935eed1701_4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4_1
- Eisenberg, N., Fabes, R. A., Nyman, M., Bernzweig, J., & Pinuelas, A. (1994).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children's anger-related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5(1), 109–128.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4.tb00738.x>
- Eisenberg, N., Spinrad, T. L., & Morris, A. S. (2004). Regulation, resiliency, and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Self and Identity*, 3(2–4), 119–142. <https://doi.org/10.1080/13576500444000047>
- Geiser, C. (2011). *Datenanalyse mit Mplus*.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Boston, MA.: Springer.
- Gifford-Smith, M. E., & Brownell, C. A. (2003).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Social acceptance, friendships, and peer network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4), 235–284. [https://doi.org/10.1016/S0022-4405\(03\)00048-7](https://doi.org/10.1016/S0022-4405(03)00048-7)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https://doi.org/10.1037/1089-2680.2.3.271>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reuter, F., Yan, T., & Tourangeau, R. (2008). Good item or bad—can latent class analysis tell?: the utility of latent class analysis for the evaluation of survey ques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71(3), 723-738. <https://doi.org/10.1111/j.1467-985X.2007.00530.x>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274-30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bke, G., & Neale, M. C. (2006). Distinguishing between latent classes and continuous factors: Resolution by maximum likelihood?.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1(4), 499-532.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4104_4
- Magidson, J., & Vermunt, J. (2002). Latent class 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1), 36-43.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https://doi.org/10.1080/10705510701575396>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https://doi.org/10.1111/j.1540-5834.1994.tb01276.x>

ABSTRACT

Latent Class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 Regulation: Examining the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Jo, HyunJi¹⁾ · Heo, MooNyung²⁾

¹⁾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 Research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classify latent subgroup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ir levels of emotion regulation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atent class.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the predictive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on latent class membership. Based on the findings,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explored to promote effective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atent group.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792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took part in the first wave of the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 2020. For data analysis, latent profile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23.0 and Mplus 8.9.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three distinct latent classes of emotion regul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low emotion regulation group, a moderate emotion regulation group, and a high emotion regulation group. In addition, both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significantly predicted latent class membership; however, the magnitude and direction of their effects differed across the latent classes.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lassifi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o distinct latent groups based on their emotion regulation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d demonstrated that differentiated interventions may be effective for enhancing emotion regulation according to latent group characteristics. These findings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identifying appropriate intervention targets and tailoring strategies to the specific needs of each subgroup.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 emotion regula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latent profile analysis